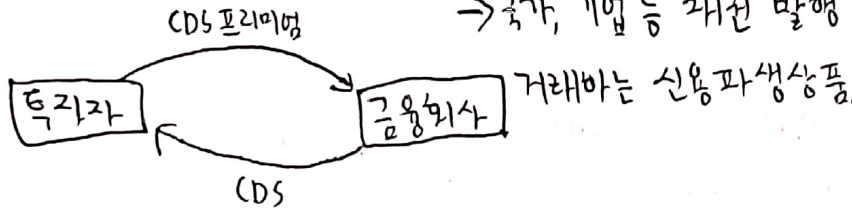


<2020.03.26. 5차 문선러닝 스터디 정리>

1. CDS 정리

CDS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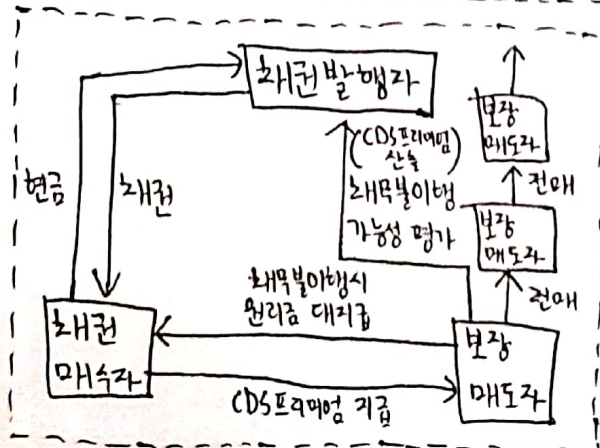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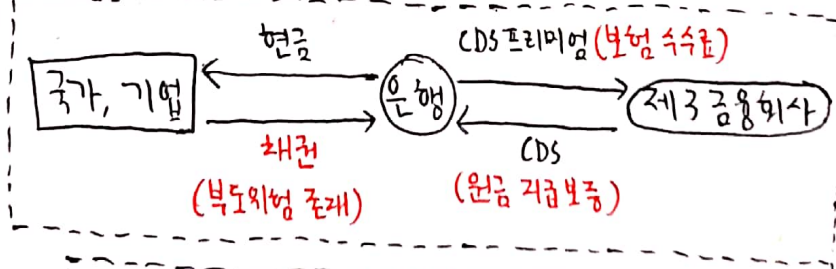
- CDS (Credit Default Swap) 정의: 신용 부도스와프. 관련 채권의 ^{원금}부도시 지급을 보증해주는 파생상품.
- 구조: → 국가, 기업 등 채권 발행 주체의 부도 위험에 대한 보장을 거래하는 신용 파생상품.



- 투자자가 일정한 CDS Premium (CDS 프리미엄)을 내고 CDS를 사면, 관련 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**투자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음**. 채권 부도에 대한 보험금 개념.
- CDS를 판매한 금융회사는 관련 채권이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CDS 프리미엄을 **수입**으로 얻게 되는 것.

- CDS 프리미엄 (CDS Premium): CDS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것.
 - 관련 채권 부도 확률이 높으면 **비싸고**, 부도 확률이 낮으면 **싸짐**.
 - 국가·기업이 발행한 **채권의 부도 위험**을 나타내는 수치.
 - 시장에서 국가·기업의 부도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음.

CDS 프리미엄 유통 구조:



- **국채 CDS프리미엄**: 각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기준으로 형성
 - **한국 CDS프리미엄**: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(외화표시채권)에 대한 복도보험료.
 - 한국의 **국가 신용도를 따지는 기준**.
 - 국제금융센터는 매일 한국(5년) CDS프리미엄 공시중.
 - **환율과 유사하게 움직임**.
- → 2019년 12월까지 22bp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였음. 코로나19 이후 2020년 3월 13일 현재 48bp로 2배 이상 급등.
 - 같은 날 중국 CDS 프리미엄 81.36bp, 일본 CDS프리미엄 36.99bp.
 - ~~3월 26일 기준 미국 CDS프리미엄 9.11bp. 작년 12월까지 15bp 수준이었는데 급락함.~~
- CDS프리미엄, 외국자본 유출입, 환율 움직임을 관계
 - 세계금융위기 기준
 - CDS프리미엄이 장기 표준리에 비해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남.
 - 외자 유입 감소.
 - 4배를 벗어남.
 - **✱** 솔림현상 (CDS프리미엄이 이전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) 발생.
 - **동화가지 절하 (환율 상승).**